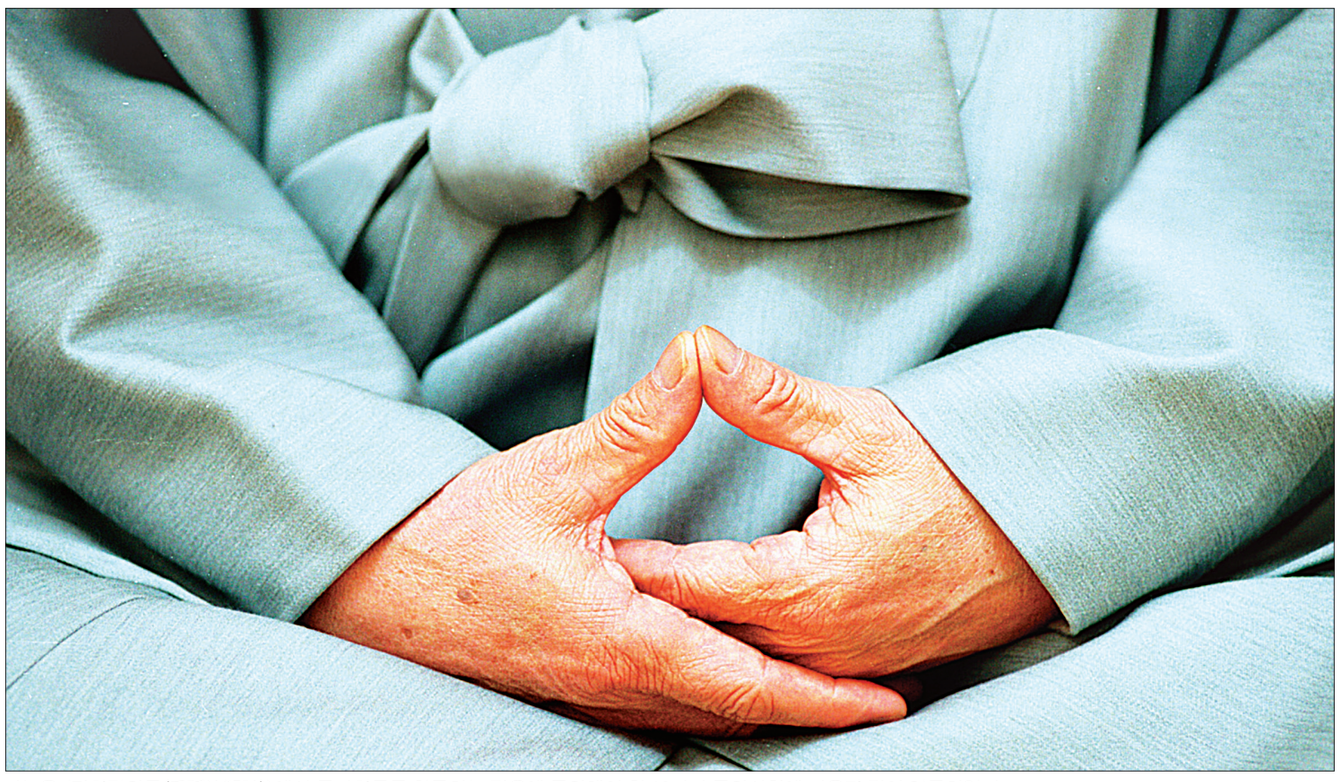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14 무자화두 참구법

▶ 한줄 요약
무자를 의심하여 잠시도 간단(間斷)이 없이 의심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망각할 경우에는 화두수행에 병폐가 발생한다.



無자 화두 '是甚麽'로 참구해야



지눌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간화선의 수행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화두 가운데 하나가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이다. 여기에서는 무자를 의심하여 잠시도 간단(間斷)이 없이 의심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망각할 경우에는 화두수행에 병폐가 발생한다. 그에 대한 내용은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로부터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제기되었다.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한 이와 같은 주의사항이 선병(禪病)의 개념으로 고려에 전승된 것은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무렵이었는데, 지눌의 경우에 거기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눌은 납자들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대혜의 어록에 보이는 간화의 수행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대혜가 주창했던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10가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10가지는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최초에 해당한다. 이것은 무자화두를 그토록 강조했던 대혜의 경우에도 확정적이지 않았던 점이다.

지눌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有나 無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진무(眞無)의 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도리를 따져서 이해하지 말라. 의미를 동원하여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동자를 깜박이는 것으로 근거를 삼지 말라. 언어를 끌어들여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아무런 일도 없는 그 자체에서 해답을 구하지 말라. 화두 자체에 해답이 있다고 간주하지 말라. 문자 속에서 해답을 이끌어내지 말라. 깨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한편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의할 사항이 원대에는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의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에서는 약간의 변용적인 계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지눌이 처음으로 규정한 무자화두 참구법의 주의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이후에 그의 제자인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을 저술하여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여기에서 혜심은 무자화두의 연원을 〈굉지선사광록(宏智禪師廣錄)〉에 수록되어 있는 조주와 한 승의 일화에 근거를 두고 지눌의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그 순서와 항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였다. 무자화두 참구의 잘못을 다스리기 어렵고 쉬움을 기준으로 난이(難離)와 이이(易離)로 구분하였다. 다시 무자화두를 추구하는 자세로서 유심(有心)으로 추구하지 말라. 무심(無心)으로 추구하지 말라. 어언(語言)으로 지어가지 말라. 적묵(寂默)으로 통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병(四病)으로 구분하였다. 분별심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사의(思義)와 부사의(不思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혜심은 지눌이 정립한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무자화두를 직접 참구하는 납자의 입장에서 분류하였다.

이후로 조선 중기에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선가귀감〉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어서 조선 후기에 백파 긍선(白坡亙璇, 1767~1852)은 〈무자간병론과해(無字揀病論科解)〉를 지어 10가지 항목을 재평가하면서 혜심의 사병(四病)을 중심으로 화두를 드는 것은 유심(有心)과 어언(語言)에 해당하고,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은 무심(無心)과 적묵(寂默)에 해당하며, 문자 속에서 해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에 두루 통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들 기존의 대혜와 지눌과 혜심과 청허와 백파가 말한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여준 각각의 방법은 분명하다. 곧 대혜종고에게서는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으로서 한꺼번에 10가지를 제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소 2가지로부터 8가지 및 10가지 이상에 이르는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겹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당시에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고 그것을 퇴치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것은 대혜였다. 지눌은 그것을 계승하여 〈간화결의론〉에서 무자화두의 참구법을 10가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혜심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저술하여 본격적으로 무자화두에 대한 잘못된 참구법을 지적하고 그것을 체계화하였다. 청허 휴정은 〈선가귀감〉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주의사항으로서 기존에 전승되어 오던 사항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한 10가지 주의사항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백파 긍선은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을 지닌 〈무자화두간병론과해〉를 저술하여 10가지 낱낱의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붙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더욱더 명료하게 하였다.

간화선서 가장 보편적인 무자화두
의심 망각 시 화두 수행 병폐 발생
대혜종고스님 구체적 항목 제기해
보조지눌국사 禪病 개념으로 전승

근대에 이르러 백용성은 〈총론선병장(總論禪病章)〉이라는 글을 통하여 무자화두의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었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와 낱낱에 대하여 낱낱의 항목을 용성 나름대로 설정하여 해설을 붙였다. 일찍이 대혜 종고 · 보조 지눌 · 진각 · 혜심의 경우에는 가령 부득작유무회(不得作有無會)처럼 10가지 주의사항의 항목 맨 앞에 모두 부득(不得)을 붙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납자를 주체적인 입장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선지식이 무자화두의 무(無)에 대하여 있다[有] 내지 없다[無]는 의미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따라서 이들 경우는 10가지 명칭이 어디까지나 참구하는 납자에 대하여 유무회(有無會)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허 휴정은 기존의 10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낱낱 항목의 맨 앞에 모두 부득(不得)을 붙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백파 긍선의 경우는 가령 간유무지해(揀有無之無解)처럼 무자화두의 무에 대하여 유무의 무라는 의미로 이해하려는 것을 간별한다는 점에서 낱낱의 항목에 간(揀)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정형적인 용어로 활용하였다. 이 경우에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유무의 무로 이해하려는 것을 간별해준다는 것은 납자의 잘못에 대하여 선지식이 그와 같은 병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체는 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주는 입장에 있는 선지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백용성의 경우 이와는 달리 10가지 모든 명칭의 맨 앞에 논(論)이라는 글자를 붙여두고 있는데, 이때 논의 주체는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로 되어 있다. 가령 논유무지병(論有無之病)에서 납자가 무자화두의 무에 대하여 유무의 무를 가지고 논의하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病)이라고 선지식이 진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용성은 〈총론선병장〉의 결론적인 대목에서 대혜 종고의 말을 인용하여 10가지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권장한다. 곧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하여 분별의 관념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분별사식(分別事識)으로도 도달할 수가 없어서 분별(分別)이 단절되고 의로(義路)가 소멸된 곳을 향해서 곧장 촉발할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분별의 입장에서 무자화두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무자화두에 접근하려는 일체의 행위가 병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有와 無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무심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평상의 이치를 이끌어내어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절묘한 불법의 도리에 적용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인간의 분별의식으로 이리저리 재고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어떤 이치나 예측이나 사량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눈썹을 치켜뜬다든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으로 자신의 깜냥을 드러내어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본래부터 천진한 면목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까닭에 굳이 이러쿵저러쿵 노심초사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라고 하여 아무런 작위도 없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무자화두 그 자체에 처음부터 대단한 그 어떤 공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선상(禪床)을 치거나 불자(拂子)를 휘두르는 것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경전이나 어록 가운데 즐겨 인용되고 있는 일화를 끄집어내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그것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직접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까닭에 불보살과 조사가 터득한 현묘한 경지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도래해야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여 마냥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려는 것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다.

그리고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잘못된 방식을 이처럼 비록 10가지 병폐로 나누어서 보다 친절하게 그것으로부터 구제해주려는 가르침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을지라도, 그와 같은 선병이 발생하는 근원에 대하여 다시 백용성은 지해(知解)로부터 의미를 따지는 의로병(義路病) · 이치를 따지는 이로병(理路病) · 문자로 이해하려는 문해병(聞解病) · 사려분별로 이해하려는 사상병(思想病)의 4가지 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하여 대혜로부터 언급된 이들 다양한 주의사항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무자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가[是甚麽]' 하는 방법으로 참구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곧 '시심마(是甚麽)'이다. 따라서 시심마는 무자화두를 비롯하여 화두를 참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화두참구에 공통한다. 달리 시심마 자체를 화두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경우도 있다.

〈동국대 HK교수〉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